‘삼일절 타종식 참가’ 박항서 감독이 본 한국축구와 월드컵

‘영웅’ 박항서 “러시아월드컵? 후배들도 저처럼 해낼 수 있어”



베트남 U-23 축구국가대표팀을 아시아 중심으로 이끈 박항서 감독(왼쪽)이 1일 열린 삼일절 기념행사에 초청돼 보신각을 타종하고 있다. “체육계를 대표한다는 생각에 다소 떨렸다”는 박 감독은 “후배들이 월드컵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고 믿는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고봉준 기자

**“월드컵 무대서 후배들 특유의 정신력 기대
난 베트남서 한국축구 위상 높이는 데 일조”**

“저처럼 후배들도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베트남 23세 이하(U-23) 축구국가대표팀을 아시아 무대 중심으로 이끌며 ‘베트남 국민 영웅’으로 자리매김한 박항서(59) 감독이 1일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제 99주년 삼일절을 기념하는 타종행사에 참석했다.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삼일절 타종식은 일제강점기 시절이던 1919년 3월 1일, 전국 각지에서 전개됐던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자리였다. 많은 시민들이 지켜본 이날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함께했는데, 주최 측은 박 감독이 이국땅에서 국위선양을 펼쳤다고 판단해 그를 특별손님으로 초대했다.

행사가 끝난 뒤 만난 박 감독은 벤치에서 선수들을 지도하던 모습과는 달리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다. “타종이 처음이라 행사 시작 전까지 조금 긴장됐다. 게다가 국가는 물론 체육계를 대표해 순국선열을 기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더욱 떨렸다”며 수줍게 웃었다.

박 감독은 지난 1월 중국에서 열렸던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에서 베트남을 준우승으로 이끌며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 그간 세계무대는 물론 아시아에서조차 축구 변방에 머물렀던 베트남은 사상 첫 AFC 주관대회 결승 진출이라는 기쁨을 안았고, 이는 박 감독을 향한 뜨거운 찬사로 이어졌다. 이날 역시 많은 시민들이 박 감독과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몰려들어 정상적인 인터뷰 진행이 어려울 정도였다.

박 감독은 “많은 한국팬들께서 격려를 해주시고 환영도 해주셨다. 최근 귀국했을 때는 주위에서 금의환향이라는 말까지 해주셨다. 나로서는 쑥스럽기만 하다. 오늘 행사 역시 앞으로도 한국축구의 위상을 높여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중요한 무대를 앞둔 후배들을 향한 응원도 잊지 않았다. 박 감독은 “6월에 2018러시아월드컵이 개막한다. 신태용 감독과 대한축구협회가 최근 세대교체와 자체 개혁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한국축구는 월드컵만 나가면 특유의 정신력을 앞세워 좋은 성적을 거두곤 했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다. 후배들이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격려했다.

지난달 8일 귀국해 각종 인터뷰와 홍보대사 위촉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던 박 감독은 본격적인 축구의 계절을 맞아 다시 기지개를 편다. 5일 AFC 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로 떠나 잠시 머문 뒤 10일 베트남으로 건너가 리그 경기를 관전한다.

박 감독은 “아직 베트남축구는 전체적으로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다. 비록 미천한 축구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생각으로 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토트넘 손흥민(맨 앞·7번)이 1일(한국시간) 웸블리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FA컵 16강 로치데일전에서 2골·1도움을 기록하고 팀의 6-1 대승을 이끌었다. 다만 전반 페널티킥 골이 VAR로 취소되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함박눈을 뚫고 페널티킥을 하는 손흥민. 런던 | AP뉴시스

2골·1도움 손흥민 “VAR로 경기지연…골 무효 아쉽다”

통신원 리포트

**FA컵 16강 3골 불구 페널티킥은 무효
“이전에도 똑같이 찼는데 이번엔 심판이…
8강전서 기성용 형과 맞대결 기대됩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1일(한국시간) 런던 웸블리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3부리그 로치데일의 FA컵 16강 재 경기에서 2골·1도움으로 팀의 6-1승리를 이끌었다.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24분, 후반 20분 골을 넣었고, 페르난도 요렌테의 골을 도왔다. 전반 27분 페널티킥으로 골망을 흔들었지만 비디오판독 시스템인 VAR을 통해 무효처리돼 아쉽게 해트트릭은 놓쳤다. 손흥민은 후반 23분 교체 아웃됐다. 토트넘은 8강에서는 기성용의 스완지 시티와 4강 진출을 다툰다.

-2골 1도움 기록한 경기다. 소감은.

“골 넣은 것도 중요하지만 FA컵 8강에 진출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기분 좋은 결과였다. 특히 눈이 많이 왔던 경기라 상당히 어려웠다. 심판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했지만 팀이 잘 해줬다. 8강전이 스완지 전인데 준비 잘해야 한다.”

-8강에서 기성용 선수 만날 수 있는데.

“(기)성용이 형과 경기하는 것은 항상 영광스럽다. 한국 선수가 있는 스완지와 붙게 됐는데…(웃음). 같이 뛸 수 있으면 좋겠고, 성용이 형도 그때까지 부상 없이 좋은 활약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준비 잘해서 성용이 형과 만나 한국 팬들에게 즐거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전반전 페널티킥 득점이 취소 됐는데 어떻게 생각했나.

“내 입장에서는 전에 모로코 전에서도 그렇게 페널티 킥을 똑같이 찼다(가다가 멈추고 킥 하는 동작을 설명). 그런데 심판이 생각했을 때 마지막 스텝이 멈춘다고 생각 했던 것 같다. 버릇이라기보다는 내가 차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인데…. 모로코 전에서도 똑같이 차서 넣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넣었다.”

-전반에만 VAR 판독으로 2골이 무효가 됐다. VAR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모든 것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자꾸 경기가 멈춰져 지연되고 선수들이 그냥 서있는 부분도 있고, 심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수들도 정보 공유가 아예 없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 VAR도입 후 첫 번째 시즌이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선수들은 전반에 많이 헤맸고, 우리 팀이 두 골이나 심판의 판정으로 무효 처리 됐기 때문에 아쉽다.”

런던 | 허유미 통신원

황희찬, 나도 있소!

FA컵 8강 멀티골…월드컵·AG 경쟁 가세



황희찬

6월 러시아월드컵과 8월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일까. 결전의 땅으로 향할 태극전사들이 쾌조의 감각을 뽐내고 있다.

손흥민(26·토트넘)이 잉글랜드 FA컵 16강전에서 2골·1도움으로 맹활약했던 1일(한국시간), 황희찬(22·잘츠부르크) 역시 2골을 몰아치며 팀의 8-0 대승을 이끌었다. 최근 세 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뜻 깊은 기록도 함께 세웠다.

황희찬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레드불아레나에서 열린 오스트리아 FA컵 8강 아우스트리아전에 선발 출전했다. 첫 골은 일찌감치 나왔다. 1-0으로 앞선 전반 15분 개인기를 활용해 수비수 두 명을 제친 뒤 침착하게 골망을 갈랐다. 이어 전반 37분에는 수비수를 등 진 뒤 한 박자 빠른 슛으로 추가골을 뽑아냈다.

이날 황희찬과 손흥민의 동반 활약은 두 사령탑을 미소 짓게 한다. 바로 신태용(48) 감독과 김학범(58) 감독이다. 월드컵에 앞서 손흥민의 짝꿍을 찾고 있는 신 감독으로선 황희찬을 유력 후보로 고민하게 됐다. 신태용호는 이달 말 유럽 원정 평가전에 나서는데 현재로선 손흥민~황희찬 조합이 최전방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최근 23세 이하(U-23)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돼 아시안게임을 이끌게 된 김 감독 역시 행복한 고민을 숨길 수 없다. 황희찬은 또래 공격수들 가운데 발군의 기량을 뽐내고 있고, 손흥민은 와일드카드 후보군을 통틀어 최고의 자원인 만큼 김 감독은 시간을 두고 여러 복안을 구상할 수 있게 됐다.

고봉준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BEVERLY HILLS POLO CLUB

명품 브랜드 비버리 힐즈 폴로 클럽 피로를 흡수하는 신발, 걸을수록 편안해진다!!

천리를 걸어도 발이 편한 새로운 개념의 기능성 건강슈즈
ALL IN ONE (올인원)

발의 형태교정 깔창 특허 / 악취제거 깔창 특허 / 미끄럼방지 밑창 특허

세계적인 명품브랜드 폴로클럽에서 인도어와 아웃도어활동이 가능한 전천후 올인원 천연가죽 남성화를 출시하였다. 기존의 트래킹화에 기능성과 디자인을 보강하고 장소와 상황에 관계없이 신을 수 있는 일명 만능 신사화가 탄생한 것이다. 쿠션감이 좋은 인솔을 내장하여 장시간 걷는 것은 물론 등산, 트래킹 이나 험한 작업, 운동등이 가능하며 직장인 들의 일상화로도 인기가 높으며 신고 벗기 편한 고급 원터치버튼을 내장하여 견고함을 더욱 보강하였다. 100%천연 소가죽을 사용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릿치창을 내장하여 심한 운동이나 작업시에도 충격을 흡수하여 발이나 발목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또한 특허받은 초강력 미끄럼 방지 밑창을 채택하여 무리없이 등산이나 트래킹이 가능하며 산업현장이나 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에서도 미끄럼 걱정없이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다.

(특허 제 10-0687107 호) (특허 제 10-0493138 호)

신사가 신을 수 있는 가장 편한 신발, 안전하다! 편안하다! 우아하다!

- 100% 국내 장인의 손길로 제작
- 인체공학적 설계로 편안한 착용감
- 100% 천연소가죽, 탁월한 내구성
- 뒤틀림, 미끄러짐 방지하는 릿지창
- 원터치 록(LOCK) 버튼, 신고 벗기 편함
- 특허받은 깔창의 자세 교정 효과
- 용수철이 내장된 지압봉이 발을 건강하게
- 3종 특수소재가 충격을 완벽하게 흡수
- 향균, 방취, 통풍 기능으로 발을 늘 쾌적하게
- 정장부터 등산복까지 어울리는 다기능화

올인원 기능성 신사화로 워킹의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느껴보세요!
3D 인체공학적 설계로 장시간 보행시 발의 피로감 감소!!

모델명 PA – 3 (브라운)



모델명 PA – 1 (블랙)



1켤레 ~~228,000원~~ → 128,000원 (택배비 무료배송)

※ 신용카드 2~6개월 무이자 할부혜택!

NAVER 검색창에 진수테크쇼핑 을 쳐보세요

제품 하자시 6개월 무상 A/S

사이즈 : 245 / 250 / 255 / 260 / 265 / 270 / 275 / 280mm

인터넷주문 : www.j1234.co.kr

제품구입 문의전화 : 1566-1788 (토요일, 공휴일 주문가능)

입금계좌 / 우리은행 : 1005-301-396749 예금주 (주)진수테크